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909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연중 제24주일

2 0 2 6

0 9

1 3

주보

입당송 집회 36,21-22 참조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 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집회서 27,30-28,7

화답송 시편 103(102),1-2.3-4.9-10.11-12(◎ 8)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로마서 14,7-9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오 18,21-35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 이다.



Q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 청하면 다 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느님께 아무리 청해도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 주시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저에게는 가혹하신 듯합니다. 그런 하느님을 따라야 할까요?

A 어느 교도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위해 모범수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가석방 심사에서 자신 자격이 된다고 강력 주장하지만 번번이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석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석방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늙었고, 밖에 나가 봐야 뭐 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반평생 살았는데 그냥 여기서 남은 여생을 지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이 얘기를 듣고 가석방 담당자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하느님은 어쩌면 항상 뼈뺀 가석방 담당자 같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안달하면 할수록 안 주십니다. 모든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체념할 때 슬며시 주십니다.

도미니크 바르텔르미라는 성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먼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느님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포기된 상태, 철저히 뿌리가 뽑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겼을 때,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albkw93@hotmail.com)

기도지향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9월	묵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455	10	4	6
2주				
3주				
4주				
합계	455	10	46	6

교황님 9월 지향 기도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 ME - 부부동반 여행 (Marriage Encounter)

- 일시 : 9월 18일(금) - 20일(주일)
- 장소 : Poverello Assisi Retreat Center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대상 :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모든 부부
- 신청문의 : 310-780-9055 남가주 ME 대표 (정동호 하삼바오로)

2. 북가주 미션순례

8월 19일(수) - 22일(토)에 예정되었던 북가주 미션순례는 9월 30일(수) - 10월 3일(토)로 일정이 연기 되었습니다.

3.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4.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썰"(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후 "썰(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6.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미사 전이나 후에 바로 자석을 부착해 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9월 13일 연중 제24주일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제1독서 : 윤원희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이경숙 도미니카	제1독서 : 박태진 콜베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9월 6일	\$1,100	\$320	\$70	\$1,890	29/11		29/11
	공소 \$300	\$100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합 계	\$1,400	\$420	\$70	\$1,890			

교무금 현황 하주영(7-9), 민원기(9), 문현식(9-12), 김선태(9,10), 김영섭(7-9)

8월 결산보고 수입 : \$8,790 / 지출 : \$5,612.33

Checking : \$26,577.59 / Savings : \$20,486.14